## < 要 約 >

### I. 北韓의 開放과 體制 展望

○ (開放 背景)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 개방은 불가피하며, 95년 이후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음

○ (體制 展望) 정치·경제적으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나, 갑작스런 단기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에 걸쳐 개방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 II. 南北 經協 展望

○ (政府 立場) 소규모 사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선 허용하되, 남북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경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 (北韓 立場) 정부 차원의 경협은 거부한 채, 민간 차원의 경협이라도 체제가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

○ (現況) 현재 남북 경협은 임가공을 중심으로 하여 대북 투자 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단계임

○ (展望) 하반기 중에 4자 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남북한·미국)가 개최될 경우, 남북 경협은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III. 投資 環境 評價

○ (投資 制度)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세제를 제외하면, 법·제도 및 SOC 등의 투자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投資 形態) 투자 형태는 합작, 합영, 단독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합영 형태인 것으로 판단됨

○ (投資 地域) 업종 구분 없이 상대 평가할 경우, 「원산·함흥권」, 「평양·남포권」, 「나진·선봉권」順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投資 業種) 인프라 투자를 우선시 하며, 제조업 유치 희망 분야는 노동력 활용, 선진 기술 도입, 수출 가능 업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IV. 投資 進出 戰略

○ (基本 姿勢) 단기 이익보다 中長期的 觀點에서 단계적·지속적으로 접근
- 대북 진출 채널 확보 및 상호 신뢰 형성, 대북 진출 교두보 확보 등

○ (選定 基準)
- 投資 地域: 북한 체제 변화에 영향이 적으면서, 진출 및 수출이 용이한 지역 (沿海 地域, 인접국과의 邊境 地域 등)
- 投資 業種: 수출 유망 업종과 북한으로부터 最大 支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단시일내 外貨 獲得이 容易한 업종, SOC 등 성장 기반 조성 분야)
- 形態: 위험도가 낮은 임가공에서 점차 합영·독자·국제컨소시움으로 발전

○ (投資 戰略) 短期的으로는 노동 집약적 및 성장 한계 산업부터, 中長期的으로는 점차 기술·자본 집약 및 내수 지향업종 중심으로 투자 전환

# I. 北韓의 開放과 體制 展望

○ (開放 背景)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 개방은 불가피하며, 95년 이후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서방의 관심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體制 展望)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나, 갑작스런 단기 붕괴 가능성 보다, 중장기에 걸쳐 개방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

## 1. 開放의 背景

**개방을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북한의 경제난**

**○ 북한은 외부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구조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음**

-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SOC 미비, 기술 낙후, 설비 노후, 수출 부진, 외화 부족, 자본 부족, 근로 의욕 감퇴, 설비 가동률 저하, 식량난·생필품난 등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6년째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 **(내적 요인)**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 자력갱생·자립 노선의 한계,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산업 불균형, 정치 도덕적 인센티브의 한계 등
- **(외적 요인)** 대외 무역 격감, 사회주의권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 우호 가격에 의한 청산 결제 방식 폐지와 경화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 낮은 대외 신용 등

**개방의 성과는 북미 관계의 진전 정도와 연동됨**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제난 해소를 위한 북한의 외자 유치 노력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북한의 외자 유치 노력은 나진·선봉 자유 경제무역 지대 설치, 무역 제일주의 표방, 무역 체계의 분권화, 각종 개방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각종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 북한의 외자 유치는 95년 이후 다소 진전을 보이

고 있으며, 북미 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서방의 투자 관심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2. 體制 變化 展望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갑작스레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경제난과 탈북자 증가 등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갑작스런 단기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정황)** 식량 지원 등 주변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 북미 관계 및 대외 개방의 일정한 진전, 군부 주도하의 내부 통제 강화,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심 유지 등
- **(전망)** 체제 수호적 차원에서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개방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속에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북한 체제 변화 전망>**

| 구 분 | 현상 유지기 (향후 1~2년) | 과 도 기 (향후 3~5년) | 체제 전환기 (향후 6~8년) |
|---|---|---|---|
| 정치·경제 개혁 순서 | 대외 경제 개방 | 대내 경제 개혁 | 대내 정치(행정) 개혁 |
| 대외 개방 | 개혁없는 부분적·제한적·선택적 개방 | 개방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 개혁을 동반한 개방의 강화(심화) |
| 대미·대일 관계 | 활발한 상호 접근 | 상당한 관계 진전 또는 국교 수립 | 국교 수립 |
| 남북 관계 | 대립 관계 | 대결 및 협력 관계 또는 화해 협력 관계 | 화해 협력 관계 |
| 남북 경협 | - **모색 단계**<br>- 민간 차원 중심의 제한적 경협 | - **도약 단계**<br>- 정부 차원에서의 경협 활성화 | - **성숙 단계**<br>- 경제 통합의 전단계로 경협의 확대·심화 |
| 안보 환경 | 정전 협정 | 평화협정 추진 또는 평화 협정 체결 | 평화 협정 체결 |

* 낙관적인 가정의 경우

# II. 南北 經協 展望

**○ (政府 立場) 소규모 사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하되, 남북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경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 (北韓 立場) 정부 차원의 경협은 거부한 채, 민간 차원의 경협이라도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
**○ (現況) 현재 남북 경협은 임가공을 중심으로 하여 대북 투자 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단계임**
**○ (展望) 하반기 중에 4자 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남북한·미국)가 개최될 경우, 남북 경협은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 南北韓의 立場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협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

**○ 정부는 소규모 시범 사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하되, 남북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 4자 회담과 경협 확대를 연계시켜 놓고 있는 정부는, 현재 소규모 시범 사업에서 제한적인 대북 접촉 허용과 「협력 사업자」의 사안별(제한적) 승인을 해 주고 있음

**북한은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북한은 남북 대화를 통한 정부 차원의 경협을 거부한 채, 민간 차원의 경협을 선호하고 있음**

- 하지만 북한은 민간 차원의 경협이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임
  · 협력 사업에 대한 비밀 유지 요구, 북한으로 반입되는 한국 물품의 국적 표기 삭제 요구 등
- 이는 경협 촉진 요인(북한의 경제난 심화, 서방 자본의 유치 미흡 등)과 경협 억제 요인(체제 불안 증대,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 우려 등)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2. 經協 現況과 展望

**임가공을 중심으로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단계**

**○ 임가공을 중심으로 대북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단계**

- **(임가공)** 투자 협력으로의 발전을 위한 전단계로, 현단계 남북 경협의 가장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음
  · 과세 : 기술자 현지 지도, 설비 반출, 품목 다양화
- **(투자 협력)** 현재 「협력 사업자」[1] 승인은 총 10개사 5,548만 달러이며, 한일합섬이 980만 달러로 최고
  · 이 중 「협력 사업」 승인을 받고 실제 추진된 것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남포에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를 설립, 본격 가동에 들어간 (주)대우 밖에 없음

**남북 대화 부재가 현단계 경협의 가장 주된 요인**

**○ 남북 경협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는 남북 대화 부재, 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각종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들 수 있음**

- 그밖에 북한의 정치 불안과 개방 관련 법규 미비, 국제 경제적 관행 미숙과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기술자의 방북 및 북한내 활동 제약, 남한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투자 절차와 각종 규제 장치, 북한 관련 정보 부족 등이 있음

**3자 설명회가 개최될 경우 경협은 보다 활기를 띨 전망**

**○ 하반기 중에 4자 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남북한·미국)가 개최될 경우, 경협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

- 이 경우 기업인의 방북 허용 확대, 대상 품목과 시설재 반출 등 임가공 확대, 남북 「협력 사업」 승인 대상 기업 확대와 소규모 시범 사업의 선별적 추진 확대 등이 예상됨

---

1) 여기서 「협력 사업자」 승인이란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 사업」 승인이란 실제적인 투자 실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 남북 협력 사업자 승인 현황 >

(단위 : 만 달러)

| 회사명 | 규모 | 승인일 | 지 역 | 승인 내용 | 북측 상대방(소속) |
|---|---|---|---|---|---|
| 고합물산 | 686 | 95. 5.17 | 협의중 | 의류, 직물, 이불, 수지병 | 광명성총회사(黨) |
| 대 우 | 512 | 95. 5.17 | 남포공단 | 남포공단(셔츠, 가방, 재킷) | 조선삼천리총회사(黨) |
| 한일합섬 | 980 | 95. 6.26 | 남 포 | 스웨터, 봉제, 모포, 방적 | 조선은하무역총회사(黨) |
| 국제상사 | 350 | 95. 6.26 | 남 포 | 신발 | 조선은하무역총회사(黨) |
| 녹 십 자 | 300 | 95. 9.15 | 평 양 | 의약품(유로키나제) | 광명성총회사(黨) |
| 동양시멘트 | 300 | 95. 9.15 | 나진항 | 시멘트 유통 기지(사일로) | 대외경제협력위원회(政) |
| 동룡해운 | 500 | 95. 9.15 | 나진항 | 항만 하역 설비(지게차, 크레인) | 해양무역회사(政) |
| 대우전자 | 640 | 96. 4.27 | 남포공단 | 전기·전자 제품(컬러 TV, 세탁기, 전자 레인지, 카스트레오 등) | 조선삼천리총회사(黨) |
| 삼성전자 | 700 | 96. 4.27 | 나진선봉 | 나진·선봉의 통신센터(전자교환기) | 조선체신회사(政) |
| 태 창 | 580 | 96. 4.27 | 강원도 고성군 | 금강산 샘물 | 능라888무역총회사(軍) |

주 : 대우는 '협력 사업자 승인 업체'(1992. 10. 5)로 지정되어, '협력 사업 승인'(1995. 5. 17), 북한과 정식 계약 체결(1996. 4.), 8월 19일부터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 '민족산업총회사'가 공식 가동중임

### < 남북 경협 현황 >

(단위 : 만 달러)

| 구 분 | 반출입 승인 현황 | | | 위탁가공교역 승인 현황 | | | 투자 협력 사업 승인 현황 |
|---|---|---|---|---|---|---|---|
| | 반 입 | 반 출 | 합 계 | 반 입 | 반 출 | 합 계 | |
| 1988 | 103.7 | - | 103.7 | - | - | - | - |
| 1989 | 2,223.5 | 6.9 | 2,230.4 | - | - | - | - |
| 1990 | 2,035.4 | 473.1 | 2,508.5 | - | - | - | - |
| 1991 | 16,599.6 | 2,617.6 | 19,217.2 | 2.3 | 1.3 | 3.6 | - |
| 1992 | 20,068.5 | 1,281.8 | 21,350.3 | 55.6 | 41.3 | 96.9 | - |
| 1993 | 18,852.8 | 1,026.2 | 19,879.0 | 438.5 | 361.1 | 799.6 | - |
| 1994 | 20,352.1 | 2,542.3 | 22,894.4 | 1,659.8 | 1,196.6 | 2,856.4 | - |
| 1995 | 23,607.5 | 7,375.1 | 30,982.6 | 2,649.0 | 2,074.7 | 4,723.7 | 512.0 대우/96년 실행 |
| 총 계 | 103,843.1 | 15,323.0 | 119,166.1 | 4,805.2 | 3,675.0 | 8,480.2 | 512.0 |

주 : 對北 쌀 지원은 제외

# III. 投資 環境 評價

○ (投資 制度) 중국·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세제를 제외하면, 제도 등의 투자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投資 形態) 투자 형태는 합작, 합영, 단독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은 합영 형태인 것으로 판단됨
○ (投資 地域) 업종 구분 없이 상대 평가할 경우, 「원산·함흥권」, 「평양·남포권」, 「나진·선봉권」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投資 業種) 인프라 투자를 우선시 하며, 제조업 유치 희망 분야는 노동력 활용, 선진 기술 도입, 수출 가능 업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 投資 制度

**법·제도, SOC 등 투자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임**

○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稅制(우대 감세 및 면세 포함) 및 勞賃을 제외하면, 법·제도 및 SOC 등의 투자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세율)** 일반 지역 25%(중국 33%), 자유경제무역지대 14%(중국 15%), 장려 부문 10% 등
- **(노임)** 최근 북한은 각종 투자 설명회에서 노임외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 불가능
  · 최저 임금 : 월 80 달러
- **(기타 투자 환경)** 전반적으로 보아 열악한 편
  ·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 미비, 통신·금융 제도 미비, 원자재 및 에너지(원유·전력 등) 공급 부족, 협소한 주변 시장
  · 정치 불안, 노동력 채용과 해고에서 각종 규제 등 기업 경영 관련 제도상의 불완전성, 외자 유치 관련 법규의 불완전성,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
-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분쟁 해결 등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미비
  · 투자 원금·이익 보호, 과실 송금 보장, 분쟁 해결, 국유화·수용·몰수에 대한 보상 등의 제

반 투자 보장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일방적 보장 또는 계약에 의한 보장에 그치고 있음

## 2. 投資 形態

**현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투자 형태는 합영 방식**

**○ 투자·경영·이윤 배분 방식에 따라 합작, 합영, 단독 등 3가지 기업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북한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방식은 합영 형태임**

- **(합작)** 투자 위험이 작고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은 소규모 경공업 중심의 설비제공형 임가공에 적합
  · 공동 투자, 북측 경영, 계약에 따른 이윤 분배
- **(합영)** 현단계 남북 경협에 가장 적합한 방식
  · 공동 투자 및 경영, 투자 비율에 따른 공동 분배
  · 공동 경영으로 인해 북측 상대에 따라 효율적 운영이 곤란할 수도 있음(북측의 관료주의적 경직성, 시장 경제나 국제 관행에 대한 무지 등)
- **(단독)** 경영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나, 북한의 경제 운용 체계나 투자 여건 등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 **(컨소시움)** 재원 조달 및 투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SOC 등 대규모 사업에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참여주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할 수도 있음

## 3. 投資 地域

**「평양·남포권」, 「원산·함흥권」, 「나진·선봉권」이 비교 우위에 있음**

**○ 업종 구분 없이 5대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투자 환경을 상대 평가할 경우, 「원산·함흥권」, 「평양·남포권」, 「나진·선봉권」이 비교 우위에 있음**

- **(압록강권)** 주요 기간 산업은 기계, 임산, 물류 등
  · 주요 도시 : 신의주, 구성, 강계, 만포 등
- **(나진 · 선봉권)** 투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
  · 주요 기간 산업 :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 자연 자원, 관광자원, 물류 등
  · 주요 도시 : 나진 · 선봉, 청진, 회령, 온성 등
- **(평양 · 남포권)** 북한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나 가장 유리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주요 기간 산업 : 섬유 등 경공업, 비철금속, 전기 · 전자, 조선, 기계, 화학 등
  · 주요 도시 : 평양, 남포, 안주, 박천, 순천 등
- **(원산 · 함흥권)**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비교적 양호하며 관광 자원 개발과 연계 가능한 지역
  · 주요 기간 산업 : 화학,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자연 자원, 관광 자원 등
  · 주요 도시 : 원산, 함흥, 흥남, 김책, 신포, 무산
- **(해주 · 개성권)**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음
  · 주요 기간 산업 : 경공업, 시멘트, 화학 등
  · 주요 도시 : 해주, 개성, 사리원 등

**< 북한내 경제 권역별 투자 환경 평가 >**

| 경제 권역 | SOC | 산업 기반 | 개방 정도 | 대외 연계성 | 시장 규모 및 전망 | 발전 가능성 |
|---|---|---|---|---|---|---|
| 압록강권 | B | B | C | A | B | B |
| 나진·선봉권 | B | C | A | A | C | A |
| 평양·남포권 | A | A | B | B | A | A |
| 원산·함흥권 | A | A | B | A | B | A |
| 해주·개성권 | B | B | C | C | C | C |

주 : 1) A(양호), B(보통), C(불리)
2) 북한내 경제 권역별 평가 기준은 각 권역간 상대 평가에 의거하되 향후 개선 가능성도 포함한 결과임
3) 「산업 기반」은 기존의 공업 기반 유무, 천연 자원 유무, 노동 인력(전문 인력 포함) 분포 등을 고려한 평가임
4) 「개방 정도」는 북한측의 외자 유치 희망 지역, 우대 조치 유무, 旣진출 기업 유무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것임
5) 「대외 연계성」은 해당 권역이 대외 경제적 연계를 바탕으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 것임
6) 「발전 가능성」은 향후 북한이 점진적인 개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것임

## 4. 投資 業種

**북한의 투자 유치 희망 업종은 노동력 활용, 선진 기술 도입, 수출 가능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짐**

**○ 최근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 외자 유치와 관련, 제조업 분야의 규모를 축소하고, 항만 등 인프라 분야의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원유 정제 및 석유 화학과 전기·전자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방의 선진 과학 기술 도입에 주력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아 설비 현대화를 도모하고 북한의 노동력 활용이 용이하며,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나진·선봉의 경우 제조업 투자 부진으로 중계 수송업과 관광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북한측 : 투자 유치 희망 분야 >**

| 주요 분야 | 주요 희망 업종 |
|---|---|
| 사회간접자본 | 나진항·청진항 등 항만, 도로, 철도, 통신 |
| 전기·전자 | 조명기구, 선풍기·다리미·면도기·냉장고·TV·녹음기 등 가전, 반도체, 컴퓨터, 집적 회로, 건전지, 전자시계, 무선호출기, 기타 전자 부품 등 |
| 자동차, 기계 | 자동차 부품(피스톤, 전동기, 발전기 등), 화물자동차 조립, 소형 오토바이, 전동기 |
| 화 학 | 원유 가공, 석유화학, 합성 수지, 화학 합성 원료 |
| 건재 및 요업 | 판유리, 석재, 보온재, 타일, 벽지 |
| 목 재 | 합판, 가구, 제지 |
| 조 선 | 선박 수리, 선박 건조 |
| 자원 개발 | 광물 자원 개발 |
| 관광 개발 | 관광 자원 개발, 호텔, 투자 촉진 센터 |
| 식료품, 제약 | 맥주, 샘물, 청량 음료, 야채 가공, 수산물 가공, 제빵, 제약 |
| 피복, 일용품 | 섬유 및 피복 등 의류, 신발, 가방, 완구, 비누, 식용유, 학용품, 기타 철제 및 화학 일용품 |

# Ⅳ. 投資 進出 戰略

○ (基本 姿勢) 단기 이익보다 中長期的 觀點에서 단계적·지속적으로 접근
- 대북 진출 채널 확보 및 상호 신뢰 형성, 대북 진출 교두보 확보 등

○ (選定 基準)
- 投資 地域: 북한 체제 변화에 영향이 적으면서, 진출 및 수출이 용이한 지역 (沿海 地域, 인접국과의 邊境 地域 등)
- 投資 業種: 수출 유망 업종과 북한으로부터 最大 支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단시일내 外貨 獲得이 容易한 업종, SOC 등 성장 기반 조성 분야)
- 投資 形態: 위험도 낮은 임가공에서 점차 합영·독자·컨소시움으로 발전

○ (投資 戰略) 短期的으로는 노동 집약적 및 성장 한계 산업부터, 中長期的으로는 점차 기술·자본 집약 및 내수 지향업종 중심으로 투자 전환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진출의 교두보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단계적 지속적으로 접근**

○ (基本 姿勢) 단기적인 이익보다 대북 진출의 교두보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북한은 수익성 측면에서 신흥공업국(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 투자 환경이 미흡한 실정임
  · 정치·경제적으로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큼
- 그러나 경협 활성화 및 투자 진출 확대에 대비, 대북 진출 채널 및 교두보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 선점 효과 및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학습 효과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음
  · 북한내 고위층과의 인맥과 친분, 신뢰 형성에 주력

**진출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변경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공략**

○ (選定 基準) 진출이 용이한 지역으로, 외화 획득 및 남북 상호 보완적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진출

- (地域) 북한 내부 상황 및 체제 변화에 영향이 적으면서 진출 및 수출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진출
  · 개방 지역 중심에서 점차 대도시나 인구 과밀 지역(평양 등)으로 확산
  · 전략 지역을 인접국과의 변경 지역 중심으로 선정

・기회 선점과 경험 축적 차원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투자 지역의 다양화 필요

외화 획득이 용이하고 남북한 상호 보완적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 **(業種)** 수출 유망 업종 및 북한으로부터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심
  ・북한측 투자 유치 희망 분야와 남북한 상호 보완적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남한측의 자본・기술, 북한측의 노동・자원을 최대한 활용 가능 분야)
  ・남한의 성장 한계 산업으로 유휴시설 활용 가능 분야
  ・북한내 당국자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업종

임가공 중심에서 점차 합영, 단독투자, 국제 컨소시움으로 전환하도록

- **(形態)** 위험도가 낮은 임가공 형태부터 우선 시작
  ・나진·선봉 지대는 북측의 외자 유치 희망 지역 및 단독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
  ・북한내 시장 및 기회 선점, 상호 신뢰 형성 등의 측면에서 점차 합영, 국제 컨소시움 방식도 고려
- **(파트너)** 인간적인 신뢰성이 있으면서 막후 조정 능력이 있는 정치적 유력 인사
  ・당 및 기업 간부와 유대 관계가 깊은 유력 정치 인사
  ・변화 대응 능력과 정보 수집・분석력이 있는 사람

**○ (投資 戰略) 투자 규모 및 소요 기간, 위험도 및 자본 회수 용이도, 남북한 기술 격차, 원재료 조달 용이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단계적 진출**

경공업 위주의 노동 집약 산업 중심에서 점차 중대규모 투자 및 자본・기술 집약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摸索 段階)** 수출 유망 업종, 노동 집약 산업 및 성장 한계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단기 공사 기간 업종, 소규모 투자 및 단기간내 자금 회수 가능 업종, 남북간 기술 격차 작은 업종 등
  ・경공업 위주(봉제, 의류, 제지, 신발, 식품 등의 임가공 방식), 관광 개발, 전기・전자 조립, 선박 해체, 물류 등
  ・투자 형태는 임가공, 합작, 합영 방식의 안정성 우선
- **(跳躍 段階)** 수출 활성화 및 자본 집약 산업 중심
  ・경공업중 기술 집약산업 및 중공업중 노동 집약산업

- 중단기 공사 기간 업종, 중규모 투자 및 중단기간내 자금 회수 가능 업종 등
-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생산, 자원 개발, 관광 개발, 일반 전기·전자 제품 생산, 범용 기계, 선박 수리 등
- 투자 형태는 합영, 단독 투자, 국제 컨소시움을 선택

– **(成熟 段階)** 수출 및 내수 가능 업종, 자본 및 기술 집약 업종 중심

- 장기 공사 기간 업종, 대규모 투자 및 중장기 자금 회수 소요 업종, 남북간 기술 격차가 큰 업종 등
- 중화학 공업 중심(제철소, 비철 제련소, 석유화학, 자동차 조립·생산), 고급 전기·전자 기기, SOC 및 간척지 개발 등
- 투자 형태는 단독 투자 및 국제 컨소시움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김정균, 홍순직, 이태섭)